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장혜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정은희**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 실태와 지도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전국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사의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문항에 대해 2차로 심층질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교사들이 미술교육에서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과 정서·인성 함양이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은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교수방법 면에서 교수적 수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시간 부족과 자료구입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중복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시간조절과 부분적인 도움 등의 교수적 수정을 하고 있으나 경험 중심 활동, 시각 교재, 충분한 개별화 교육시간 등이 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도방법에 있어서 미술용어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고, 의사표현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으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수행 평가방법으로는 실기법과 관찰법을 주로 사용하나, 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평가방법과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의 고찰을 통한 논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다.

주제어 : 청각장애,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

* 제1저자(2622511@hanmail.net)

** 교신저자(eunheej@chosun.ac.kr)

I. 서 론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함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이 발달하며, 사회성이 신장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한다. 청각장애 중학생 역시 이 시기의 청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겪게 되고, 여기에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나희정, 정은희, 2011).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술활동은 청각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감각기관을 더 활용하게 되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예리한 시각적 관찰력과 집중력, 촉각 등 다른 감각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과이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학습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 만지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의사소통 기능향상에도 효과적이다(유혜영, 2010). 따라서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에서는 청각장애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문화매체가 개발되어 그들이 다양한 미술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경험시킬 필요가 있다(김윤근, 2003).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미술활동은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감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장애학생의 미술활동은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8).

이와 같은 미술활동을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3가지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미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적 체험 활동은 생활 속에서 미적 요소의 체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활동은 주로 미술경험을 생활과 연결하여 조형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창의적 표현과 소통능력을 키워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감상활동은 미술 지식과 개념 등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미적체험 활동에서는 직접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은 시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시각적 예리함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시각 문화 환경의 체험 및 손으로 재료를 다룰 때 느끼는 물성체험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한 감상교육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종합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감상영역은 미술의 지식과 개념을 익혀서 미술에 대해 이해한 것을 언어화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이

표현하기 힘든 자기의 내적의사나 경험을 조형언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활동 또한 제작 활동을 통해 실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 과정의 한 과목으로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미술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운영은 교사의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구화를 교육적 상황에 맞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 등 미술교사의 역할이 크다(이미숙, 2009; 김윤근, 2003).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학생들의 시각적 예민성을 최대한 개발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면에서 일반학생과는 다른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박미혜(2006)와 권영자(2000)는 시각적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박미혜(2006)는 ICT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어려운 미술용어에 대한 이해, 창의력 신장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고, 권영자(2000)는 영상매체를 통한 시지각 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의 창의적 회화능력 신장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등은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소개해주는 것과 함께, 교수적 수정을 위한 정보축적 측면에서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교육환경측면에서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다(이윤이, 1989; 임정규, 2001; 김윤근, 2003). 이윤이(1989)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교육의 체계적인 전문적 지도와 미술교육시설의 재정비, 그들을 위한 문화매체가 개발되어 교육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임정규(2001)는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을 위해 미술 전공자가 배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윤근(2003)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미술교육이 잠재가능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매체가 개발되지 않은 점 등 미술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미적체험 영역의 구성내용은 표현과 감상 영역의 학습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과 다른 감각을 함께 활용하여 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체험을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작활동과 생활 속에서 미술적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개정 이후에는 어떤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청각장애학교 미술 교육 환경의 특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인식이 교사의 경력이나, 청각장애 유무, 재직학교의 설립형태, 교원자격증의 종류 등 배경 변인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는 것도 학교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미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지도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2차에 걸쳐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1차는 전수조사로써 전국 19개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교사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설문지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하여 배부하였고, 19부(100%)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1차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여자 교사(63.2%), 41세 이상(57.9%), 교직경력이 10년 이상(64.8%)인 교사가 많았다. 자격증 종류는 일반중등미술교사 자격과 특수교육 자격 소지 교사들(57.9%)이 더 많았고, 사립학교(73.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설문지에 대해 χ^2 (Fisher's exact test) 검정을 실시한 후, 변인별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 5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하고자, 교사의 재직학교 설립형태, 연령, 자격종류, 청각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교사 3명을 편의 표집하여 2차 심층 질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질문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9)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7	36.8
	여	12	63.2
연령	40세 이하	8	42.1
	41세 이상	11	57.9
교직경력	5년 미만	3	15.8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5.8
	10년 이상	13	68.4
자격종류	특수교육	8	42.1
	일반중등미술 + 특수교육	11	57.9
설립 형태	국·공립	5	26.3
	사립	14	73.7

<표 2> 심층 질문 대상자의 특성

(N=3)

해당교사 \ 구분	연령	설립 형태	자격증 종류	장애유무
교사 A	31 ~ 40세	국·공립	특수교육	청각장애
교사 B	41 ~ 50세	사립	특수교육	청각장애
교사 C	41 ~ 50세	사립	일반미술 + 특수교사	청인

2. 연구 도구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청각장애 미술교사 1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항 제작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주로 청각장애학교 및 특수학교 실태조사로 선행연구 되었던 이지윤(2006), 김정순(2004), 최향숙(2007), 김윤근(2002), 임정규(2001)등에서 사용한 설문지이며, 이를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사 1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행평가, 수업시 언어문제, 교사의 미술전공 역량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1차로 51 문항이 완성되었다. 그 후 언어청각장애전공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주제와의 부합여부에 따른 문항의 침삭과 재배치, 용어의 적절성, 문장의 진술방식 등에 대해 수정을 하여 2차로 32문항을 완성하였다.

2차로 완성된 문항에 대해 설문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청각장애 학교에 근무하는 미술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주제와의 관련성, 문항중복, 문장의 적절성, 편집 등의 수정을 한 후, 다시 지도교수와의 토의를 거쳐 재수정하여 최종 20문항을 완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교사 개인적인 배경, 미술과 운영, 미술지도 방법 및 평가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심층질문은 1차 설문지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연령, 학교 설립 형태, 자격증 유형별 χ^2 검정한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 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질문지는 개방형 서술식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술교육의 주안점, 교수적 수정 시 어려운 점, 학생작품에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 감상·표현활동의 수행평가방법, 감상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이다.

<표 3>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I. 교사 개인적인 배경	성별, 연령, 경력, 자격종류, 학교설립형태	I.1-5 5
II. 미술과 운영	미술교육 주안점, 교육과정에 청각장애 특수성 반영정도,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중복장애학생의 수와 교수적 수정	II.1-8 8
III. 미술과 지도 및 평가방법	감상영역지도, 표현영역지도, 창의성, 수행평가 방법, 평가방법개선방안	III.1-7 7
총 계		20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1차 설문조사는 전국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 2010년 6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자료수집은 특수교육통계(2010b)와 인터넷을 통한 학교 홈페이지를 토대로 전국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알아보았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1차 완성을 한 후, 3회에 걸친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주제부합성, 연구 문제별 문항 배치, 문장 진술방법 등에 대해 수정을 한 후 2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각장애학교 교사 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주제와의 관련성, 문항중복, 문장의 적절성, 편집 등에 대해 수정하고,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청각장애 학교 연구부장 교사와 연락을 하여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차 심층질문 조사는 교사의 변인을 고려하여 3명의 교사에게 2010년 7월 15일부터 ~ 2010년 7월 30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3명의 응답지를 모두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처리

1차 설문지 조사결과는 선다형의 설문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인(성별, 연령, 경력, 자격증, 학교설립형태)에 따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셀 당 사례수가 적어서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1차 설문지 분석에서 χ^2 검정 결과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만을 표로 제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χ^2 검정 결과표와 2차로 심층 질문하여 응답된 내용을 해당 문항의 양적 결과와 함께 그대로 기술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미술교육의 주안점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교사들이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교사들의 배경 변인별로 분포를 알아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47.4%)과 정서와 인성함양(42.1%)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하위 변인별로 χ^2 검정한 결과 성별, 경력, 자격종류, 설립형태 별 분포에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chi^2=8.529$, $p<.05$)에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40세 이하 교사는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에 중점을 둔 반면, 41세 이상의 교사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나 2차 심층질문을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해 주었다.

<표 4> 미술교육의 주안점

	구 분	교육과정 이수	취업·진로	정서·인성 함양	창의적 표현 능력신장	합 계	자 유 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0(0.4)	1(0.4)	3(2.9)	3(3.3)	7(7.0)	3	2.271 (0.743)
	여	1(0.6)	0(0.6)	5(5.1)	6(5.7)	12(12.0)		
연 령	40세 이하	0(0.4)	0(0.4)	1(3.4)	7(3.8)	8(8.0)	3	8.529 (0.014)*
	41세 이상	1(0.6)	1(0.6)	7(4.6)	2(5.2)	11(11.0)		
경 령	5년 미만	0(0.2)	0(0.2)	0(1.3)	3(1.4)	3(3.0)	6	6.493 (0.465)
	5~10년 미만	0(0.2)	0(0.2)	1(1.3)	2(1.4)	3(3.0)		
	10년 이상	1(0.7)	1(0.7)	7(5.5)	4(6.2)	13(13.0)		
자 격 종 류	특수	0(0.4)	0(0.4)	3(3.4)	5(3.8)	8(8.0)	3	2.131 (0.883)
	특수 + 일반	1(0.6)	1(0.6)	5(4.6)	4(5.2)	11(11.0)		
설 립 형 태	국·공립	0(0.3)	0(0.3)	2(2.1)	3(2.4)	5(5.0)	3	1.272 (1.000)
	사립	1(0.7)	1(0.7)	6(5.9)	6(6.6)	14(14.0)		
합 계 (%)		1(5.3%)	1(5.3%)	8(42.1%)	9(47.4%)	19(100%)		

*p<.05

40세 이하의 교사가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에 대한 심층 질문을 한 결과 A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각장애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이 주입식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적 표현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수업이 틀에 박힌 표현만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미술수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41세 이상인 B교사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른 인성과 정서를 갖고 있어야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융화되어 잘 통합이 될 것이고, 그래야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인성을 바르게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술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미술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1세 이상의 C교사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 정서·인성함양이 미술 교육의 중점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 아동들의 창의적인 표현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극히 많이 떨어져 창의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보다는 단순히 따라해 보고 표현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오리기, 붙이기 등은 다른 과목에 비해 매우 흥미 있어 하는 표현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표현위주의 수업을 살펴 볼 때 오히려 교육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술 활동이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둔 미술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의견으로 볼 때, 40세 이하 교사는 주입식 수업방법으로 인한 창의적 표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에 41세 이상인 B교사와 C교사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B교사는 앞으로 통합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서안정과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C교사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창의적 표현능력이 떨어지고 모방활동이 주를 이루며 단순조작 하는 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며, 오히려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적 활동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서와 인성함양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였다.

2)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 특수성 반영정도

2007년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이 청각장애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약간 반영하고 있다’는 10명(52.6%), ‘잘 모르겠다’는 5명(26.3%),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3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 특수성 반영정도

	많이 반영	약간반영	거의 반영되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 계
빈도(%)	1(5.3%)	10(52.6%)	3(15.8%)	5(26.3%)	19(100%)

3)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운영 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운영 시 어떤 부분의 교수적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과 같이 교수방법의 수정이 5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사의 부분적 도움이 36.8%로 나타났다.

<표 6> 교수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

	전자미술 교과서 필요	교사의 부분적 도움	교수 방법의 수정	수정 필요 없음	합 계
빈도(%)	1(5.3%)	7(36.8%)	10(52.6%)	1(5.3%)	19(100%)

4)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

교육과정에서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별 x^2 검정 결과 성별, 연령별, 경력별, 자격증별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설립형태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x^2=6.712, p<.05$).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에, 사립학교 교사는 교수적 수정 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7〉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

	구 분	자료 구입	교육과정 지침 없음	준비시간	수정 필요 없음	합 계	자유 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2(2.2)	0(0.4)	0(0.7)	5(3.7)	7(7.0)	3	2.198 (0.696)
	여	4(3.8)	1(0.6)	2(1.3)	5(6.3)	12(12.0)		
연령	40세 이하	3(2.5)	0(0.4)	1(0.8)	4(4.2)	8(8.0)	3	1.272 (1.000)
	41세 이상	3(3.5)	1(0.6)	1(1.2)	6(5.8)	11(11.0)		
경력	5년 미만	2(0.9)	0(0.2)	0(0.3)	1(1.6)	3(3.0)	6	5.334 (0.613)
	5 ~ 10년 미만	0(0.9)	0(0.2)	1(0.3)	2(1.6)	3(3.0)		
	10년 이상	4(4.1)	1(0.7)	1(1.4)	7(6.8)	13(13.0)		
자격증	특수	4(2.5)	0(0.4)	1(0.8)	3(4.2)	8(8.0)	3	2.967 (0.470)
	특수 + 일반	2(3.5)	1(0.6)	1(1.2)	7(5.8)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1.6)	0(0.3)	2(0.5)	3(2.6)	5(5.0)	3	6.712* (0.030)
	사립	6(4.4)	1(0.7)	0(1.5)	7(7.4)	14(14.0)		
합 계(%)		6(31.6%)	1(5.3%)	2(10.5%)	10(52.6%)	19(100%)		

*p<.05

설립형태별로 차이가 난 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질문을 한 결과, 국·공립학교 A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학교에서 미술실이 다른 건물에 있고 수업도 한 시간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장애가 심한 학생 같은 경우 학생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적 수정을 해주지만 실제 주어진 미술시간 30분 안에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 합니다. 이런 학교 실정 때문에 부족한 시간에 학생들이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도움을 제공하는 횟수가 다르게 적용하는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 힘으로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사C에게 심층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방법이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적 수정은 말보다는 시각자료를 보여 주는 게 더 이해가 빨라 시각자료를 구하려고 하지만 막상 인터넷이나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미술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여러 그림들을 보며 생각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일반 미술자료로 청각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미술관련 수화책자나 수화로 된 미술자료 없어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부에서 매 학기 초에 학습자료 도서책을 신청하여 미술교과 자료로 쓸 도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예산편성의 문제로 미술과목에만 많은 책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가 원하는 만큼 도서자료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학교 교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수적 수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교사는 미술실환경의 문제를, 사립학교 교사는 미술자료 구입 문제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5) 중복장애 학생 수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 중복장애 학생 수는 <표 8>과 같이 총 19개교 중 10%~30%인 학교가 8개교였고, 21%에서 30%라고 응답한 학교가 3개교였다. 10%이내인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였다.

<표 8> 중복장애 학생 수

	10% 미만	10%~20%	21%~30%	31%~40%	41% 50%	51% 이상	무응답	합 계
빈도(%)	2(10.5)	8(42.1)	3(15.8)	2(10.5)	1(5.3)	2(10.5)	1(5.3)	19(100)

6)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시정도

청각장애학교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시정도에 관해서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는 13명(68.4%), '상황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는 5명(26.3%),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표 9>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시정도

	실시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 실시함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합 계
빈도(%)	13(68.4%)	5(26.3%)	1(5.3%)	19(100%)

7) 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개선점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개선 점에 대해서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7명(36.8%), ‘흥미를 위한 다양한 시각적 교재’는 6명(31.6%), ‘충분히 개별적인 교육시간 필요’에는 4명(21.1%), ‘중복장애 학생에게 맞는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연수’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표 10> 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 개선점

	충분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미술 시간 필요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복장애학생 수업 지도방법에 대한 교사연수 필요	다양한 시각적 교재개발	합 계
빈도(%)	4(21.1%)	7(36.8%)	2(10.5%)	6(31.6%)	19(100%)

8)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적 수정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수적 수정 방법에 대해 자유 기술방식으로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를 유사한 내용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사 개별적으로 교수적 수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빈도가 낮고, 오히려 무응답이 42.1%로 나타났다.

〈표 11〉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적 수정

(N=19)

교수적 수정 방법	세부내용	빈도(%)
시간연장	- 차근차근, 천천히 활동하도록 지도	1(5.3)
친숙하고 사용이 용이한 자료 사용	-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친숙한 재료를 이용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 하도록 함 - 실생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조절해 줌(예, 붓대신 나무젓가락 사용)	2(10.5)
부분적 도움	- 처음 교사가 틀을 잡아주고 스스로 하게 하며 부분적 도움제공 - 교사가 그림의 본을 그려주고 학생은 색칠하기 - 신체적 보조	3(15.8)
수준별 참여로 대체	- 그리기 보다는 꾸미기나 만들기로 대체 - 개인별 능력에 맞게 수업준비(퍼즐, 색칠하기, 클레이 활용)	2(10.5)
무응답		8(42.1)

2. 미술과 지도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정도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 이해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보통이다’는 10명(52.6%), ‘이해도가 낮다’는 7명(36.8%), ‘이해도가 높다’는 1명(5.3%)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12〉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정도

	이해도가 높다	보통이다	이해도가 낮다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합 계
빈도(%)	1(5.3%)	10(52.6%)	7(36.8%)	1(5.3%)	19(100%)

2) 표현 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조절

표현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조절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와 자율성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다’ 는 11명(57.9%),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하나 학생들이 잘 해 내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에 4명(21.1%), ‘모든 것을 정해 주고 참고 자료를 주어 완성의 방향을 제시 해 준다’ 에는 4명(21.1%)으로 나타났다.

<표 13> 표현 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조절

	통제와 자율성을 적절히 혼용	자율성을 부여하나 잘 못함	교사가 완성 방향 제시	합 계
빈도(%)	11(57.9%)	4(21.1%)	4(21.1%)	19(100%)

3)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

청각장애학생들의 미술작품에서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교사와 학생이 수업내용에 대한 의사표현의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에 9명(47.7%), ‘상상을 자극하는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하다’ 는 5명(26.3%),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가 미흡하다’ 는 3명(15.8%), ‘학생들이 미술은 기능위주의 모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표 14> 창의성 부족 이유

구 분		잘 이루어짐	적용하기 힘들다	활용 방법을 모름	활용할 시간이 없다	합 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3(1.8)	4(3.3)	0(0.7)	0(1.1)	7(7.0)	3	3.584 (0.356)
	여	2(3.2)	5(5.7)	2(1.3)	3(1.9)	12(12.0)		
연 령	40세 이하	3(2.1)	3(3.8)	1(0.8)	1(1.3)	8(8.0)	3	1.483 (0.900)
	41세 이상	2(2.9)	6(5.2)	1(1.2)	2(1.7)	11(11.0)		
경 력	5년 미만	1(0.8)	1(1.4)	1(0.3)	0(0.5)	3(3.0)	6	4.158 (0.837)
	5~10년 미만	1(0.8)	1(1.4)	1(0.3)	1(0.5)	3(3.0)		
	10년 이상	3(3.4)	7(6.2)	1(1.4)	2(2.1)	13(13.0)		
자격증	특수	5(2.1)	2(3.8)	0(0.8)	1(1.3)	8(8.0)	3	9.169 *(0.012)
	특수 + 일반	0(2.9)	7(5.2)	2(1.2)	2(1.7)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2(1.3)	2(2.4)	1(0.5)	0(0.8)	5(5.0)	3	2.317 (0.561)
	사립	3(3.7)	7(6.6)	1(1.5)	3(2.2)	14(14.0)		
합 계(%)		5(26.3%)	9(47.4%)	2(10.5%)	3(15.8%)	19(100%)		

*p<.05

변인별로 χ^2 검정한 결과 교사자격증($\chi^2=9.169$, $p<.05$)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창의성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는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반면에, 특수와 일반 자격증 모두 가진 교사는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자격증을 가진 교사A에 대한 심층질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학생들은 다른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상력이 풍부하고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시각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며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A4 용지에다 출력해서 코팅한 것을 수업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학부와 고등부 전학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볼 때마다 미흡하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층질문결과 특수자격증을 가진 A교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의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어 학생들은 교사의 작품 자료 하나만으로 자신이 만들어야 할 작품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게 하고 있었다.

한편, 특수자격증과 일반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심층질문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교사C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미술과목이 그렇듯 참고작품을 통해 설명해주고 제시하는 쪽이 많으며, 언어 표현보다는 단어에 가까운 표현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말과 수화로 표현한 부분 보다 많은 그림과 예시작품을 통해 제시되었을 때 이해를 더 잘 하므로 저는 다양한 예시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화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화는 단순하여 오히려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수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와 일반 자격증을 모두 가진 교사C는 미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그림과 예시작품을 제시해 주고 있다.

4)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방법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 방법으로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순위는 ‘실기법’ 8명(42.1%), 2순위는 ‘관찰법’ 8명(42.1%), 3순위는 ‘토론법’ 6명(31.3%)으로 나타났다.

<표 15>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평가방법

구분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관찰법	7(36.8)	8(42.1)	2(10.5)
감상문	3(15.8)	4(21.1)	3(15.8)
토론법	0(0)	2(10.5)	6(31.6)
포트폴리오	0(0)	1(5.3)	2(10.5)
서술형 및 논술형	1(5.3)	0(0)	0(0)
실기법	8(42.1)	2(10.5)	3(15.8)
면접법	0(0)	1(5.3)	0(0)
구술시험	0(0)	0(0)	1(5.3)
연구보고서	0(0)	1(5.3)	2(10.5)
합 계(%)	19(100%)	19(100%)	19(100%)

5)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 활용정도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 활용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6>과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활용을 하려 하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수준’은 9명(47.4%),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5명(26.3%), ‘시수의 부족 등으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는 4명(21.1%), ‘활용을 하려 하나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표 16>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

구 분		잘 이루어짐	적용하기 힘들다	활용 방법을 모름	활용할 시간이 없다	합 계	자유도	χ^2 (p)
성 별	남	3(1.8)	3(3.3)	0(0.4)	1(1.5)	7(7.0)	3	2.028 (0.725)
	여	2(3.2)	6(5.7)	1(0.6)	3(2.5)	12(12.0)		
연 령	40세 이하	0(2.1)	6(3.8)	1(0.4)	1(1.7)	8(8.0)	3	7.303* (0.028)
	41세 이상	5(2.9)	3(5.2)	0(0.6)	3(2.3)	11(11.0)		
경 력	5년 미만	0(0.8)	2(1.4)	1(0.2)	0(0.6)	3(3.0)	6	7.069 (0.286)
	5~10년 미만	0(0.8)	2(1.4)	0(0.2)	1(0.6)	3(3.0)		
	10년 이상	5(3.4)	5(6.2)	0(0.7)	3(2.7)	13(13.0)		
자격증	특수	2(2.1)	5(3.8)	0(0.4)	1(1.7)	8(8.0)	3	1.888 (0.900)
	특수 + 일반	3(2.9)	4(5.2)	1(0.6)	3(2.3)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1.3)	3(2.4)	1(0.3)	1(1.1)	1(1.0)	3	4.247 (0.157)
	사립	5(3.7)	6(6.6)	0(0.7)	3(2.9)	14(14.0)		
합 계(%)		5(26.3%)	9(47.4%)	1(5.3%)	4(21.1%)	19(100%)		

*p<.05

χ^2 검정 결과 연령($\chi^2=7.303$, $p<.05$)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에 대해 40세 이하 교사는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말한 반면에 41세 이상인 교사는 수행평가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40세 이하인 교사A는 심층질문결과는 적용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행평가를 적용하려면 같은 작품을 두 번 만들어야 하는 점 때문에 같은 것을 두 번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또한 중복장애로 인해 손의 기능적 사용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수행평가를 정말 적용하기에 힘든 수준입니다"

한편, 41세 이상인 B교사는 수행평가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농인 교사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점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이들의 입장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평가를 잘 선택해서 수업과 평가가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1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교사C는 수행평가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수업시간에 완성한 작품들을 즉시 비교 평가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된 작품과 잘못된 작품을 같이 비교 감상하여 스스로 보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 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표현이 서툰 학생들과 중복장애학생들은 간단한 물음을 제시해 비교하여 답하도록 해서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수행평가방법을 수정하여 제시해 주어 중복장애 학생들의 수행평가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간단한 물음으로 비교 감상에 대한 감정들을 질문 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비교 감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중복장애 학생들도 수행평가에 대한 저의 교수방법에 거부감 없이 잘 따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40세 이하 교사는 반복하기 싫어하는 학생과 중복장애 학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용에 제한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41세 이상의 농교사는 농인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41세 이상의 청인 교사는 비교평가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수정하여 수행평가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6) 감상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에 대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감상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

구 분		감상할 시간이 없다.	미술용어를 어려워한다	감상영역 수행평가 방법을 모른다	감상문 쓰기가 어렵다	합 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1(1.5)	2(2.6)	1(0.7)	3(2.2)	7(7.0)	3	1.404 (0.842)
	여	3(2.5)	5(4.4)	1(1.3)	3(3.8)	12(12.0)		
연 령	40세 이하	3(1.7)	2(2.9)	1(0.8)	2(2.5)	8(8.0)	3	2.650 (0.586)
	41세 이상	1(2.3)	5(4.1)	1(1.2)	4(3.5)	11(11.0)		
경 력	5년 미만	0(0.6)	1(1.1)	0(0.3)	2(0.9)	3(3.0)	6	3.413 (0.926)
	5~10년 미만	1(0.6)	1(1.1)	0(0.3)	1(0.9)	3(3.0)		
	10년 이상	3(2.7)	5(4.8)	2(1.4)	3(4.1)	13(13.0)		
자격증	특수	3(1.7)	2(2.9)	1(0.8)	2(2.5)	8(8.0)	3	2.650 (0.586)
	특수 + 일반	1(2.3)	5(4.1)	1(1.2)	4(3.5)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3(1.1)	0(1.8)	0(0.5)	2(1.6)	5(5.0)	3	7.068* (0.042)
	사립	1(2.9)	7(5.2)	2(1.5)	4(4.4)	14(14.0)		
합 계(%)		4(21.1%)	7(36.8%)	2(10.5%)	6(31.6%)	19(100%)		

*p<.05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어려운 미술용어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7명(36.8%), ‘학생들이 글로 쓰는 감상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6명(31.6%), ‘실기위주의 수업을 하므로 감상할 시간이 없다’는 4명(21.1%), ‘학생들이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χ^2 분석한 결과 학교설립형태($\chi^2=7.068$, $p<.05$)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공립 교사는 감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한 반면에, 사립학교 교사는 어려운 미술용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에 교사들이 감상평가에 어려움을 ‘감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에 대한 심층질문 결과 교사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저는 청각장애 2급으로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미술용어와 관련하여 준비한 사진과 그림을 제시 한다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들려주기 때문에 수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실이 다른 건물에 있어 수업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 감상 할 시간이 부족하여 감상 시간이 매 학기 1회 정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미술평가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미술용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심층 질문 결과 사립학교 C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술용어가 있는데 특수아동들은 언어적으로 듣지도 못하는 미술용어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수화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표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의 미묘한 감정들이 특히 예술작품에서는 많이 적용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상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의 표현이 '아름답다', '깨끗하게 잘 표현되었다' 정도의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언어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질문에 응해준 국·공립학교 교사는 수화가 주된 언어인 청각장애 교사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미술 감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사립교사는 청인으로 학생들과 언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교사의 장애 유무나 더 나아가 학생들과 공통된 의사소통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과 수업 하면서 겪는 교사의 어려움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감상평가 개선 방법

감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표 18>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8> 감상평가 개선을 위한 방법

	영역간 연계적 지도	미술용어 설명 교재 필요	직접체험을 통한 미술품감상 기회 확대	감상 방법에 대한시범	감정을 표현 방법 안내	합 계
빈도(%)	4(21.1%)	3(15.8%)	4(21.1%)	2(10.5%)	6(31.6%)	19(100%)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을 안내해 준다’ 6명(31.6%), ‘표현활동과 감상영역과의 연계성, 미적체험과 표현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 한다’는 4명(21.1%), ‘직접체험을 통한 미술품감상의 기회가 많아지도록 한다’는 4명(21.1%), ‘어려운 미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3명(15.8%),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 작품을 통한 시범을 보여 준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1. 미술과 운영 실태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교사들이 미술교육에서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과 정서·인성 함양이었는데, 연령별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심층면접한 결과 젊은 층의 교사는 대부분의 교과수업이 주입식 수업방식이므로 학생들이 창의적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미술수업에서는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되도록 계획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연륜이 더 많은 교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융화와 통합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으로 정서와 인성함양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령변인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은 미술교육의 중요한 측면일 것이며, 선행연구 역시 연구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측면들을 중요시하고 있다. 김윤근(2003)은 기능위주의 미술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에 중점을 둔 수업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반면, 추현주(2007)와 김미순(2007)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학생에게 미술을 통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은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교수자료 활용방법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천적인 면에서 많은 제한을 느끼고 있었다. 2008년 및 2010년 공통교육과정에서 국어, 영어, 음악 이외의 교과는 일반학교 공통 교육과정에 의한다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청각장애 학생의 차이성과 특정성을 전혀 반영 하고 있지 않다. 일반교육과정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면 개개 학생의 특수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접근하기 위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완적·대체적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보편성에 치우쳐있다. 보편성은 특수성이 보장될 때만이 보장될 수 있다 (강창욱, 2011).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전부터 끊임없이 언급된 것으로, 이현수(2006)와 김윤근(2003)은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제언하였다. 또한 나희정과 정은희(2011)의 연구 방법처럼 교사의 지도 실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과활동과 만족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수정, 보완에 참고하는 것도 교육과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는 교수방법 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수적 수정 시 어려운 점으로는 시간 부족과 자료구입을 들었다. 공립학교 교사는 장애 정도가 다른 학생들로 인해 교수적 수정을 하기에는 미술실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교사의 도움 정도를 달리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사립학교 교사는 구어보다는 시각자료나 관련도서를 구입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수화 자료의 부족과 미술도서 구입을 위한 재정적인 측면을 제한점으로 들었다. 이러한 청각장애학교의 물리적, 재정적 교육환경의 문제는 이윤이(1989)와 김윤근(2003) 그리고 임정규(2001)에서도 이미 지적했던 것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물리적 교육환경 중 교구와 교재는 임정규(2001)의 연구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수화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필요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정비 되어야 하는 환경요소들이다.

넷째, 중복장애학생 수는 전체의 10%에서 30%를 차지하는 학교가 삼분의 이 수준이며, 이들을 위해 대부분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복장애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각적 교재, 충분한 시간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들을 위한 교수적 수정은 시간조절과 부분적인 도움 그리고 수준별 방법 제시 등을 언급하였으나 절반 정도의 교사가 무응답인 점은 실제 교수적 수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미술시간 수업시수를 1, 2학년은 주당 1시간, 3학년은 주당 2시간으로 배정하고 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복장애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은 정해진 시간동안 활동 내용과 난이도,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미술실이 별도의 건물에 있어서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시간 문제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교수적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경험 중심 활동, 시각교재, 충분한 개별화 교육시간 등이 더 필요할 것이다. 경험 중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윤근(2003)도 지적하였고, 직관적 경험중심의 교육에 대해서는 최향섭(2000)과 신나리(2007)가 중도·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방법으로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교사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함께, 보조교사나 시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

청각장애 미술과 지도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활동의 지도방법과 수행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상활동을 지도할 때 미술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대부분 낮다고 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발달에서 많은 지체를 보이는데 이로 인해 교과학습을 위한 어휘이해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감상영역은 시각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 영역으로서 인지적 접근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와 비평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감상활동은 작품의 이해와 함께 감상문 쓰기, 발표 및 토론활동을 하게 되는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설명중심의 수업보다는 흥미 유발을 위해 시각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감상교육을 체험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인지기능발달뿐 아니라 감성함양 교육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박선영, 2008; 조은성, 2009). 이 점에 대해서는 정순은(2009) 역시 체험위주의 미술관 활용프로그램이 창의성과 사회성, 공동체 및 전인교육으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감상활동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는 지침만 마련해 놓고 있어 청각장애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의 방향이 활용 중심을 강조하며 미술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교육과학기술부, 2008), 지역의 미술문화를 적극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부족한 감상 체험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표현영역의 목표는 다양한 동기유발을 통해 표현의지를 키워주고 자기주도적인 표현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교사들은 창의적 표현활동을 위해 자율성과 통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이윤이(1989)와 김윤근(2003)은 청각장애학생의 미술작품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의사표현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시각자료의 제시 부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심층 질문한 결과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실제 작품을 제작하여 그 과정을 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사는 참고작품이나 예시작품, 다양한 시각자료 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숙(1991), 임정규(2001), 김윤근(2003)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사는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성과 실기능력, 충분한 설명을 위한 수화능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예시자료를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워크샵을 확대하고, 미술 교사연수에 수화강습을 포함하면 현장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방법으로는 실기법, 관찰법, 토론법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기법과 관찰법은 표현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재는 평가 방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나타난 실기법과 관찰법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토론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감상능력이나 미술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비록 청각장애학생이 언어표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언어능력과 어휘습득에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토론법과 연구보고서와 같은 수행평가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반정도의 교사들은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심층 질문한 결과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작품을 두 번 만들어야 하는데 반복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시하기 곤란하며, 손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더욱 힘들다고 하였다. 한편,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농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의 입장을 공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중심의 평가방법이 아닌 청각장애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평가방법과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미술용어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농교사의 경우는 용어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다른 청인 교사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예술적 감성의 수화 표현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와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감상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므로, 추후 청각장애학생들의 미술활동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본다면 수요자 중심의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과정 개발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둘째, 이 연구는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심층질문을 통해서 교사의 다양한 변인별로 실제적인 생각들을 알아봄으로써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려고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나, 심층질문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각 변인별 의견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더 확보하여 심층적인 질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욱 (2011). **청각장애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탐색**. 2011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권영자 (2000). **영상매체를 통한 시지각 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 창의적 표현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특수교육연구보고서, 특수교육총연합회.
- 교육과학기술부 (2010a). **특수교육 교육과정[별책1]**, 교육과학기술부 교시 제2010-44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0b). **특수교육통계**.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특수학교교육과정해설(Ⅲ)**,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해설 연구·개발**.
- 김윤근 (2003).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순 (2007). **청각장애아동의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순 (2004). **특수학급의 미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초등학교 105개의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희정, 정은희 (201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2(1), 173-206.
- 박미혜 (2006).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ICT 활용 중학교 미술교육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나리 (2007). **중복장애의 자기표현에 대한 한국화 매체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유혜영 (2010). **색채의 공감각에 의한 색채인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1990). **청각장애아의 미술과 학습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이 (1989). **청각장애아에 대한 바람직한 미술교육방안의 모색(전국 농아학교의 미술 교육 환경 실태조사에 따른)**.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윤 (2006).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 조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수 (2006).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실행 모형 개발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임정규 (2001). **청각장애아의 미술교육의 현황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순은 (2009). 미술관 활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중학교 미술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성 (2009). 체험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과정안 개발연구(중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향숙 (2007). 정인지체 특수학교 미술교육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초등부대상).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향섭 (2000). **감각지체부자유 학생 교육의 방향**. 연구자료, 국립특수교육원.
- 추현주 (2007). 비언어적 미술치료가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The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Art Education in Special Middle Schools with Hearing Impairment

Jang, Hye 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Jeong, Eun Hee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urvey research and an experimental instruction were performed by the survey which has had encountered through the nineteen art instructors of students who have hearing impairment in special middle schools over the entire nation for researching in art educational curriculum for students who have hearing impairment, for the method of an art education. In such research, after analyzing Fisher's exact test in surveying nineteen question papers following at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results of the teacher's interview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t the teacher's recognition for management of art education in special middle school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main point of the art education is nurturing the capability of improving and creating an environment as well as the characters while developing the noble personality through cultivating an artistic sentiment and creativity by offering an opportunity of self-expression. Also, to design and improve a teaching-learning system is the teaching methods and the developing of the student experimental programs for the learning procession in a curriculum. Second, the teacher's educational managements to children who have hearing impairment for their art education are viewing of an art museum, providing them visual aids, producing a experimental programs for children who have hearing impairment in case of their deficiency of the their direct experience and connecting a guidance of teaching methods in student results assessments, writing an appreciation sentence, an artificial language and communication for an art education when teachers evaluate the hearing impairment students' works.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middle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art education

논문 접수: 2011. 05. 05 심사 시작: 2011. 05. 09 게재 확정: 2011. 06. 15